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이슈브리프

미 연준의 테이퍼링 결정 배경과 전망
제조현장의 스마트공장 고도화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미 연준의 테이퍼링 결정 배경과 전망	1
제조현장의 스마트공장 고도화	4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	6
--------------------	---



미 연준의 테이퍼링 결정 배경과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윤영교 (yoonyk@kdb.co.kr)

- ◆ 미 연준은 11월 FOMC를 통해 테이퍼링 착수를 선언함으로써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공식화,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일부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이를 일시적 둔화로 해석한데 따른 결정인 것으로 판단
- ◆ '13년 사례를 참고로 보면, 연준의 테이퍼링과 이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긴축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며, 금리인상 일정이 빨라질 경우 한국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일정 영향이 불가피

□ 미 연준은 '21.11월 FOMC에서 테이퍼링(자산매입 규모 축소)을 결정함으로써 통화긴축 개시를 공식화, 다만 긴축 일정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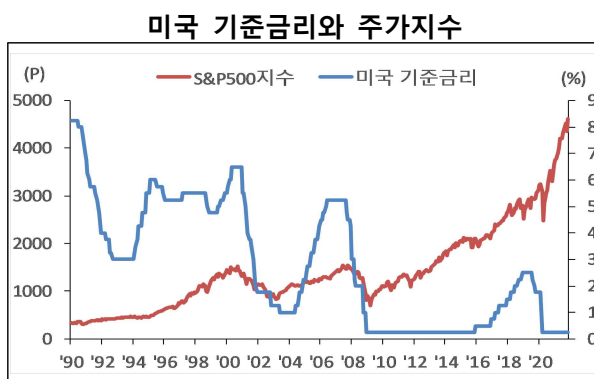
- 미 연준은 11월 FOMC(11.3일)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대처를 위해 실시해온 자산매입프로그램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테이퍼링 돌입을 발표
 - 연준은 현재 매월 1,200억 달러(장기국채 800억 달러, MBS채권 400억 달러)씩 매입하고 있는 자산규모를 월 150억 달러(장기국채 100억 달러, MBS채권 50억 달러)씩 축소하기로 결정
 - 테이퍼링은 11월말(later this month)에 개시하며, 매입 축소 속도는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성명서에 명시*
 - * but it is prepared to adjust the pace of purchases if warranted by changes in the economic outlook('21.11월 FOMC Statement 중)
- 기준금리 인상 개시 시점을 의장이 직접 또는 성명서에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일각의 테이퍼링 종료 직후('22.6월말)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연준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음을 반영
 - FOMC 결과 발표 직후 미국 주가지수는 오히려 상승*하는 등 상당기간 예견되어왔던 연준의 긴축 전환 충격을 시장은 차분히 소화
 - * 11.3일 미국 S&P500지수는 FOMC 이전보다 0.65% 상승한 4,660.6P로 마감
 - 향후 미국 경제 방향은 여전히 코로나19 억제 성과와 공급망 문제 해소 여부에 달렸으며,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테이퍼링 속도와 마찬가지로 유동적임을 강조

□ 미 연준은 최근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가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에는 미흡하나 통화 긴축 시작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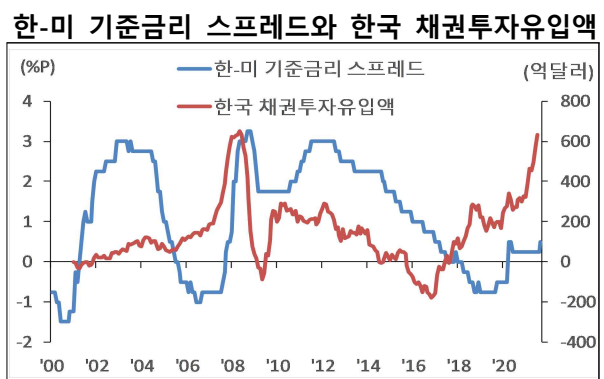
- 미국 3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2.0%(연율화, 비연율화 0.5%) 성장에 그치며 코로나19 발생('20.2분기, △31.2%)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, 연준은 이를 일시적 둔화로 판단
 - 3분기 성장률 둔화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소비액이 급감*한 가운데 기업 설비투자**도 감소한 데 주로 기인
 - *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소비 증가율(%전분기비 연율): 58.0('21.1Q)→16.0('21.2Q)→△53.9('21.3Q)
 - ** 기업설비투자 증가율(%전분기비 연율): 14.1('21.1Q)→12.1('21.2Q)→△3.2('21.3Q)
 - 차량용 반도체 등 주요 원자재의 공급 불일치에 따른 제조업 생산 차질이 '21.3분기 GDP를 통해 확인되었으나, 연준은 이를 팬데믹과 경제 리오프닝(reopening)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
 - 따라서, 高물가 장기화에 따른 스테그플레이션이나 혹은 급격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(定常化)에 착수
- 고용시장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나, 연준은 과거 사례를 참고로 긴축 개시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
 - 미국의 '21.9월 월간 신규고용자수는 19.4만명 증가하며 '21.1월(12.2만명)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, 실업률은 4.8%로 8월보다 0.4%p 하락하였고 고용비율*은 58.7%로 8월보다 0.2%p 상승
 - * 노동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취업 의사 보유자에 대한 고용시장의 취업 수용 수준을 측정
 -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팬데믹 이전 수준('21.2월)에 미달하나 '13.12월 테이퍼링 당시 고용지표 추이를 참고한 결정으로 추정
 - '13.12월 테이퍼링 착수 당시 미국 실업률이 6.7%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였던 10.0%에 비해 낮아졌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4.4%보다 높은 수준
 - 동일 시점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도 금융위기 이전 대비 99.5% 회복('21.9월 현재 팬데믹 이전 대비 96.7% 회복)
 - 즉, 고용시장이 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 회복하지 못했더라도 추세적인 개선세가 확인되면 연준은 테이퍼링 통화 긴축을 개시한 전례

□ 미 연준의 정책 전환은 견조한 경제성장 전망을 전제하나,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로 인한 우리나라 자본유출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변수

- 미 연준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은 경제성장세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
 - 긴축 초기에는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강하나, 이후에는 긴축이 안정적 경기 회복을 반영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는 경향
 - 과거에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기에 미국 경제는 장기적인 성장세를 나타내었으며, 주식 등 자산시장 역시 상승세를 시현
- 미 연준의 긴축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유인이 강화됨으로써 향후 한국 통화정책에도 상당한 영향
 -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은 미 연준의 긴축에 대비해 '21년 연달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며 글로벌 달러 유동성 축소에 대비
 - 한국 역시 '21.8월 기준금리 인상(0.50%→0.75%)을 단행한데 이어 11월 금융통화위원회(11.25일 예정)에서도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
 - '22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시장 관측을 따를 경우, 한국은행의 '22년 기준금리 인상 일정도 이에 연동될 가능성
 -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차이가 커질 경우, 한-미 금리 스프레드 (=한국 기준금리-미국 기준금리)가 축소되며 빠른 자본유출에 의한 금융 및 실물경제 불안도 발생 가능



자료 : Refinitiv



자료 : Refinitiv

제조현장의 스마트공장 고도화
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
민 성 희 (shmin@kdb.co.kr)

- ◆ WEF는 '18.9월부터 제조현장에 4차 산업기술이 적용되어 운영 중인 '등대공장'을 발표
- ◆ 등대공장은 제조현장 고도화에 따른 성과(KPI 향상, 新비즈니스 창출 등)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며 산업계의 혁신을 자극
- ◆ 국내 정부도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확대 중이고, 대기업들도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하며 기술역량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음

□ WEF(World Economic Forum)는 '18.9월부터 년2회 '등대공장(Global Lighthouse Network)'을 선정하여, 제조현장에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모범 사례를 제시

- WEF와 맥킨지가 공동 선정하는 등대공장은 길을 밝혀주는 '등대'에서 나온 용어로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을 의미함
 - 등대공장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*을 선보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, 그 기술이 제조현장에 적용되어 실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어야 함
 - * 3D프린터, IoT, AI, 로봇, 디지털트윈, 센서 기술 등

- '18.9월 이후 최근까지 세계 각국 총 90개 공장이 등대공장으로 지정되었고, 가전, 철강, 전자, 석유화학, 의약 등 다양한 업종의 대·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음
 - 지역별로는 아시아(50개), 유럽(29개), 북미(9개), 남미(2개) 순
 - 단일국가로는 중국이 30개로 가장 많고, 한국은 2개(포스코, LS일렉트릭)가 있음

□ 등대공장 보유 기업은 KPI 향상, 신제품·서비스 등 비즈니스 창출, 기술 선도기업으로서 가치 선점 등의 성과를 보여주며 기존 산업계의 혁신을 자극

- 등대공장은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효율적인 제조시스템과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대부분 KPI(Key Performance Indicator)*를 향상시킴
- * 지속가능성, 생산성, 민첩성, 시장 대응 속도, 고객화

등대공장의 KPI 향상 효과

지표		효과	지표		효과
① 지속가능성	온실가스 배출 감소	8-97%	② 생산성	공장효율 증가	2-140%
	쓰레기 감소	4-80%		생산성 증가	4-250%
	물소비 감소	5-65%		설비효율 증가	2-84%
	에너지 효율	1-58%		생산비용 감소	4-70%
③ 민첩성	재고감소	5-100%	④ 시장 대응 속도	운영비용 감소	3-92%
	생산공정(리드타임) 단축	10-99%		품질 원가감소	2-99%
	작업전환시간 감소	11-100%		제품출시 속도 단축	10-89%
⑤ 고객화	적시 배달 증가	16-30%		디자인 변화 타임 감소	2-98%
	로트사이즈(생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위) 단축	40-100%			

자료 : World Economic Forum('21.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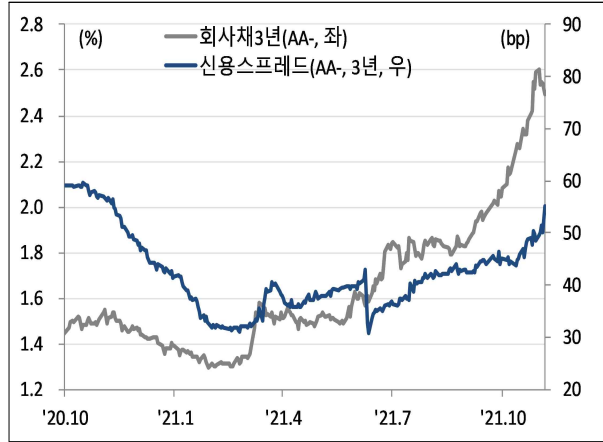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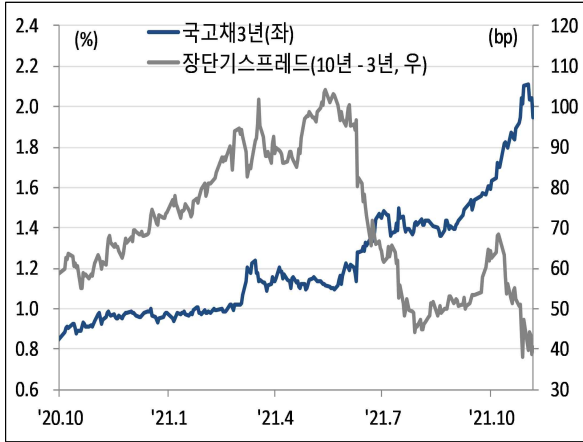
- 등대공장 보유 기업은 자사 공장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수요확대*가 예상되는 스마트공장 구축 산업의 기술 공급자로 참여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**
 - * Statista2021는 글로벌 스마트공장 시장이 '24년까지 연 9.6%(2,440억달러) 성장할 것으로 전망
 - ** 한 예로 등대공장 3개를 소유한 사우디아람코는 석유회사이면서 동시에 IT업체로도 활동
- 혁신적인 제조기술을 통해 '25년까지 최대 3조 7,000억달러의 가치가 창출*될 것으로 보이는데, '등대기업'과 같이 제조현장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빠르게 적용한 기술 선도기업이 그 가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임
 - * Mckinsey('20.1), 'Industry's fast-mover advantage: Enterprise value from digital factories'
-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산업계는 제조현장에 혁신기술을 적용하는데 소극적이었으나, 여러 가지 성과들이 가시화되면서 스마트공장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
 - 성공으로 확산되던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가 실패사례로 드러나는* 등, 산업계 입장에서 혼돈의 시기가 있었음
 - * '15년부터 구축·운영되던 아디다스(獨)의 스피드팩토리(스마트공장)는 '19년 폐쇄기로 결정
 - 그러나 최근 들어 '등대공장' 보유기업은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 쉽게 진입*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여,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대한 움직임을 가속시키고 있음
 - * '21.11월 테슬라의 전기차 80만대분의 리튬인산철배터리를 수주한 CATL(中)도 등대공장 보유기업임

□ 우리나라도 정부와 산업계의 공감대 형성으로, 정부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하고,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음

- 정부는 '21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시 '고도화'* 단계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** 한편, K-등대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의 고도화 수준을 높이고자 함
 - * 스마트공장 구축 단계는 '기초→중간1→중간2→고도화' 순이나, '고도화' 단계가 고도화1, 2로 세분화됨
 - ** 고도화 지원금 : (기존) 고도화(최대 1.5억원) → (개선, '21~) 고도화1(최대 2억원), 고도화2(최대 4억원)
 - 정부는 K-등대공장*을 중소기업 고도화방향을 제시해줄 모델로 활용함과 동시에 WEF-등대공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
 - * K-등대기업은 총 3년간 최대 12억원(총 사업비의 50% 한도)을 지원받을 수 있음
 - '21년 10개사(자동차, 전자제품, 뿌리업종 등)를 시작으로 '25년까지 100개사 지원 예정
 - ※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·중견기업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홈페이지에서 구체적 사업을 확인할 수 있고, 각 지역 혁신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음
- 포스코*, LS일렉트릭**을 포함한 대기업은 자사 공장의 고도화는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하여, 스마트공장 구축시 필요한 혁신 기술 역량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음
 - * 포스코는 '19.7월 WEF가 선정하는 '등대공장'으로 지정
 - ** LS일렉트릭은 스마트공장 수요자-공급자의 오픈형 매칭 플랫폼인 '테크스퀘어'를 개발·운영 중으로 '21.9월 WEF가 선정하는 '등대공장'으로 지정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금 리 국고채3년 1.944% (15.9bp ↓), 신용스프레드 55.1bp (6.6bp ↑)



환 율 원/달러 1,185.2원 (16.6원 ↑), 엔/달러 113.42엔 (0.6엔 ↓)



주 가 코스피 2,969.27pt (0.05% ↓), 코스닥지수 1001.35pt (0.91% ↑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951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18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